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주님 수난 성지주일
제37권 20호(가해) 2017년 4월 9일

[묵상]



<주님 수난 성지주일>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

그러나

'호산나'라는 환호의 소리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 대한 찬미의 소리는,
길가에 깔던 종려가지와 옷가지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고함으로,
난무하는 야유와 욕설로,

"내 백성아, 내가 네게 잘못된 것이 무엇이나?"

무엇으로 너를 근심케 하였더냐?

대답해 나오"(성금요일 전례).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다면 어디 데 보아라.

그러나 잘못이 없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느냐?"(요한 18:23)

내게 무슨 변명의 말이 남아 있을까?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마음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변하지 않는 마음,

베드로 같이 배반하지 않는 마음을 갈망 하신다.

-오-

petrus3@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80-2789

미사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 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제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제주 - 모임의 날 (안나회/양엄회/성모회/자모회/대견회) ● 푸리아 오후 1:30 3제주 - 요셉회 4제주 - 사목회 ●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CLOSED	2:00~7:00(오후)
수	9:30~11:30(오전)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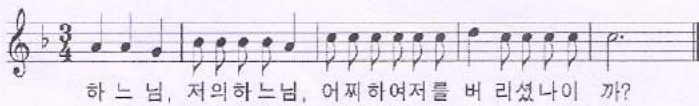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입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저녁 미사	(연)
	(생)
주일 학생	(연)
	(생)
주일 낮 미사	(연)
	(생)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50,4-7

화답송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 대고,
입술을 비쭉거리며 머리를 내젓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 내시겠지.” ○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 ○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
제 속옷 놓고는 제비를 뽑나이다.
주님, 멀리 떠나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신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저는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러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

제 2독서 필리피서(Philippians) 2,6-11

복음
환호송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
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수난복음 마태오(Matthew) 26,14—27,66 <또는 27,11-54>

영성체송 아버지, 이 잔이 비켜 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한국 교회의 역사

맺음말 - 한국 현대 교회사와 과제

그리고 교회는 직접적인 선교 활동과 더불어 수도 생활의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미래의 한국 교회는 사목자뿐만 아니라 신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본격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교회를 떠나 있는 많은 냉담자를 활동적 신자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전개해야 할 것이며, 하느님 백성의 친교와 일치를 기반으로 한 진정한 신앙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본당 단위뿐만 아니라 교구 조직과 운영에서도 ‘하느님 백성의 소리’를 두루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역시 필요하다.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 일에 종사하며 투신할 수 있는 유능한 평신도를 양성하고 이들을 존중해야 한다. 현재 교회의 특수 논리가 보편적 논리로 대체 발전하는 과정에서 성직자의 권위주의에 대한 지적이 나타나고 있으니, 현대 교회의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반성과 상호 이해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한국 교회는 인류의 복음화와 구원을 위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지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 교회는 자신의 선교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해외 선교에 각별한 관심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교회의 본질이 선교라면, 현대의 한국 교회는 아시아 지역, 특히 중국의 선교에 대하여 본격적인 투신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 교회는 전통 종교와 개신교 등 타종교와 대화하는 일에 좀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 교회에는 대화를 주관하는 상급 기관의 움직임은 있으나, 그 대화의 정신이 교회 구성원들에게까지 파급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대화는 현대 교회의 본질과 관련되므로 이를 결코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대화를 통해서 한국 천주교회는 자신의 활동 영역과 시야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 교회는 인류의 복음화와 인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 봉사를 다짐해야 한다. 새 천년기의 한국 교회는 인류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투신하는 모습을 드러내 줄 것이다.

< 계속 >

오늘의 성가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154	154	예루살렘 들어가실때
봉헌	256	256	264
성체	280	280	292
파견	151	151	152

베드로 사도의 눈물의 내용을 묵상하며 거룩한 성주간을 지내고 싶습니다

성지 주일인 오늘 우리는 서로 대치되는 극적인 장면이 전례를 관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겸손의 상징인,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소박하지만 마음을 다해 환영합니다.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합니다. 입던 옷을 깔아 길을 냅니다. 소리 높여 호산나, 호산나!를 외칩니다. 솔직 담백한 즐거움과 기쁨의 물결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수난과 죽음을 들려주는 오늘의 복음 말씀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유다의 배반을 시작으로 음모, 모략, 거짓증언, 타협이 서로 공조를 이루며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이토록 극명하게 상반되는 사건을 한 몸으로 받아들여야만 했던 주님은 마침내 숨을 거두십니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가슴이 저미어 옵니다. 숨이 멎는 듯합니다. 기쁨에 찬 소박한 환영은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고난 받는 중에 대한 이사야서의 한 구절인 “그러나 그를 으스스르르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다.”(이사 53,10)라는 말씀만이 메아리 쳐 돌아옵니다. 아드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신 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었다고?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필리 2,8)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 위에서 순종하며 돌아가신 아드님!

이 순간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신비 앞에 서 있습니다. 인류와 세상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연민의 정 때문에 외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인간과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죽으신 아드님의 마음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가 되어 만나십니다. 성삼의 신비가 계시됩니다. 십자가 안에서 계시되는 성삼의 신비, 아드님의

죽음 안에서 실현되는 아버지의 뜻, 그것은 오직 인간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자비 그리고 용서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성삼의 신비가 꽃을 피웁니다. 인간의 죄가 십자가에서 광란을 부렸다면, 인간과 세상을 향한 성삼이신 하느님의 사랑 또한 절정을 이루며 폭포수가 되어 우리를 향해 흐릅니다.

폭포수가 되어 끝없이 흐르는 사랑과 자비, 이는 이 세상과 나를 구원하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이 순간 베드로 사도께 눈길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당당하게 입성한 베드로, 스승님을 지키려고 칼까지 뽑아 든 베드로, 이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고 말한 베드로, 그의 컷전에 닭의 울음소리가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힙니다. 흐르는 눈물을 자제 할 수 없습니다. 그 눈물의 내용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베드로 사도가 흘린 눈물의 내용을 묵상하며 거룩한 성주간을 지내고 싶습니다

◆ 홍성만 미카엘 신부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담당

먼저 멀어지지만 앓는다면

흑독한 시련을 거꾸 겪게 되면

신마져 이제 나를 버렸나 한탄하게 되는데,
버렸다는 것은 가진 적이 있었다는 것.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한때나마 그에 속해 있었다는 것.
시련은 아프지만 어쩌면 신은 그것을 통해 우리가 그의
사람들이라는 걸,

그러니 앞으로도 버려지는 일 따윈 결코 없다는 걸
귀땀해주는 것인지도 몰라.

-이 영 아네스-

이번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신덕레 데레사	남성철 베네딕도
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박혜경 레나타 한경숙 안나	이영석 크리스토퍼 전하현 마리아
수난복음	이만석 미카엘	김교복 레오 김금자 데레사	박진수 스테파노 박혜경 레나타
제물봉헌자			토남 3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부활성야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남성철 베네딕도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	김교복 레오		장영진 안토니오
제2독서	서용숙 에스텔		강혜원 아네스
제물봉헌자			토서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오늘 사제가 축복한 성지(聖枝)는 내년 재의수요일 전 주일까지 잘 보관하십시오.
 성삼일(목,금,토)은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교회의 전례 주년 가운데 가장 경건한 시기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습니다.
 ◆ 성삼일(The Easter Triduum) 전례
 ● 성 목요일 주님 만찬 저녁미사 : 4월13일 오후 8시 (밤 9시30분부터 수난감실 성체 조배)
 *사순절 희생 애공 봉투를 미사 중에 봉헌합니다.
 ● 성 금요일 주님 수난예식 : 4월14일 오후 8시
 * 미사는 없으며 십자가 경배와 영성체 예절이 있습니다.
 * 예절 중에 예루살렘 성지를 위한 특별헌금이 있습니다.
 * 수난예식에 앞서 오후 3시 : 전신자 십자가의 길
 ● 성 토요일 부활 성야미사 : 4월15일 밤 9시
 ◆ 부활 대축일 미사(4월16일) : 오전 9시30분, 오전 11시

- ◆ 2017 예비자 교리반 모집 합니다.
- 교리기간 : 5.25~12.7 (목) 저녁 8:10~9:10
- 환영식 : 5. 21일 11시 미사 후 강당

- 세례식 예정 : 12월10일
- 연락처 : 이영석 크리스토퍼 ☎(310)796-6960
- ◆ 4월 요셉회 모임
 - 일시: 4월 9일 (오늘 주일) 12:45pm
 - 장소: 토요스시
1441 W. Knox St.#300, Torrance, CA
 - 문의: 정기은 비오 ☎(310)780-2789
- ◆ 엠마오스 여행 초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본당 엠마오스 여행에 초대합니다.
 - 일시: 4월 17일(월요일) 8시 성당출발, 저녁 6시 성당 도착
 - 여행지: 팜스프링 Aerial Tram 케이블카
 - 회비: \$30,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4월 24일 부터 월요일 새벽미사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오늘 주일은 (9일) 봄 방학으로 주일 학교, 한국 학교는 수업이 없습니다.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4월 9일: 홍합미역국 (\$ 3, 토서2반)
*주일학교 : 수업 없음(Spring Break)
 - 4월 16일:소고기 무국 (\$ 0 , 토남3반 봉사담당)
*주일학교 : 샌드위치(5,12학년)

수난감실 성체 조배 시간표 - 4월13일(성 목요일)/14일(성 금요일)

시간	담당 구역	시간	담당 구역
성 목요일 밤 9:30 ~11시	성가대	성 금요일 새벽 2시 ~ 3시	토런스 동
성 목요일 밤 11시 ~ 12시	토런스 북	성 금요일 새벽 3시 ~ 4시	P.V.
성 금요일 자정 ~ 새벽 1시	토런스 남	성 금요일 새벽 4시 ~ 5시	하버/카슨
성 금요일 새벽 1시 ~ 2시	토런스 서	성 금요일 아침 5시 ~ 6시	구역외 / 전례부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성전헌금
고천용 김관기 김상근 김상기 김선영 김선제 김양금 김 욱 김원모 김 은 김재희 김정아 김정웅 김종철 김진우 김현숙 나경흠 남명자 남성철 박상준 박씨니 박음전 박인식 박정희 반정이 방정복 배기엽 양영관 양영자 오일순 유선식 윤희동 이근모 이민상 이영희 이은득 이재정 이제옥 이형삼 임의웅 장영진 전정일 정순석 정판영 최기남 호경진 익 명 한길선례 합계:\$ 5,400	고천용 김관기 김상기 김선제 김양금 김원모 김재희 김현숙 나경흠 남명자 남성철 박상준 박씨니 박음전 박인식 박정희 방정복 양영관 양영자 유선식 윤희동 이근모 이민상 이영희 이은득 이재정 이형삼 장영진 정순석 정판영 최기남 익 명 한길선례 합계 : \$2,770
주일미사헌금 : \$ 2,540	2차헌금: \$618

◆ 첫영성체 학보모 모임

- 일시 : 4월30일(주일) 10:30 AM
- 장소 : 2층 첫 영성체 교실
- 문의 : 첼리 현 ☎(310)560-4968

◆ 2017 ~ 2018 학년도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 장학금 신청 안내

- 올해로 여섯번째를 맞이하는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가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을 받습니다.
- 수혜대상 : High school 12학년 ~ 대학1~3학년 재학생
 - 자격 : 본당 등록 신자의 자녀로서, 교회 활동과 봉사에 참여하며,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 신청 기간 : 4/29/2017 ~ 5/31/2017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사무실에 있음.)
 - 수여 예정일은 8/6/2017 (Sun)
 - 문의 : 본당 신부님

◆ 2017 성령쇄신 봉사자 세미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 주소서"(루카 1,38)

- 일시 : 5월 19일(금) 오후 3시~21일 (주일) 2박3일
- 장소 : 아씨시 피정센터(Poverello of Assisi Retreat House)
1519 Woodworth St. San Fernando, CA91340
- 강사 : 정전석 프란치스코 신부 (예수회소속)
- 참가대상 : 각성당 기도회원 및 관심 있는 신자
- 준비물 : 성경, 묵주, 필기도구, 세면도구, 컵, 미사 지향 및 헌금
- 참가비 : \$130.00(숙박비 포함)
- 문의 : 본당 성령기도회장 강혜원아네스 ☎(310)780-0369

남가주 소식

◆ 2017 남가주 청년 연합회 주최 캠프 '섬포'

- 주제 : '공감' "주 너의 하느님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여호1,9)"
- 일시 : 2017. 5. 19(금) ~ 21(일) 2박 3일
- 장소 : 테메쿨라 꽃동네 피정센터
37885 Woodchuck Rd 79 S Temecula, CA 92592
- 대상 : 미혼 한인 카톨릭 청년 누구나
- 참가비 : \$130
- 신청 : 연합회 회장 임성오 바오로(714)388-2366

◆ 예수성심 피정의 집 건립

- Payable to : Jesus Sacred Heart Retreat Center
Mailing Address : PO Box 75509, LA, CA 90075-5509
- 금액에 상관없이 벽돌 하나 봉헌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동입금도 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 Bank of Hope 은행
Routing No. 122038251
Account No. 001913271
- 문의 : 최대제 신부 ☎(213)248-9707
아그네스성당 ☎(323)731-4433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신재 메히틸다 713-4926	김정희 올리아 04/05(수)오전11시 성당
	2	장수영 페트릭 781-0787	장수영 페트리치오 04/22(토) 성당
	3	윤미애 안나 560-7120	이경 카타리나 04/21(금)오후7시30분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박동수 베드로 218-7340	김교복 레오 04/22(토) 오후5시
	2	최양숙 안젤라 800-7393	최상만 사비노 04/08(토) 오후5시30분
	3	박명순 안나 968-7600	박명순 안나 04/15(토)오후12시
토런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 458-3356	1	김준 방지거 625-3312	오창애 안나 04/21(금)오후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광자 소화 데레사 04/17(월)오전11시
	3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이남현 막시모 04/08(토)오후6시30분
토런스 북 이복임엘리사벳 905-2225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박정희 마리아 04/10(월)오후6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종 다니엘 (818)640-9171	1/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김윤진 카타리나 04/08(토) 오후6시 성당2층R3
P. V. 송인선 안젤라 (503) 927-0770	1	남혜나 베네딕타 384-3289	4/7(금) 십자가의 길로 대체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김동진 스테파노 04/14(금)오후7시
	3	신혜정 로사 213-369-0687	신혜정 로사 04/08 (토) 봄 야유회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박운모 아가다 04/11(화)오전10시30분 성당

이번 주일 단체 모임

제단체 모임	1시
--------	----

다음주일 단체모임

--	--

성주간

주님 수난 성지 주일부터 한 주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지상생활의 마지막 한 주 동안에 이룩하신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고 경축합니다.

파스카 성삼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부활에 관한 파스카 신비를 기리는 3일로 '주님 만찬 저녁미사'부터 '예수 부활 대축일' 제2저녁기도 때까지의 시기입니다.

주님 만찬 성목요일: 4월13일(목)

예수님께서 수난하시기 전날 저녁,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말씀 전례 후에 발씻김 예식을 거행하며, 영성체 후에 성체를 수난감실에 모시고 성체조배를 합니다.

주님 수난 성금요일: 4월14일(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은 교회 전통에 따라 성찬례를 거행하지 않고 말씀 전례와 십자가 경배, 영성체 예식만을 거행합니다. 이날은 금식(만 18세~60세)과 금욕(만 14세 이상)을 지키는 날입니다.

성토요일: 4월15일(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쉬시고 저승에까지 복음을 선포하신 것을 묵상하며 부활의 실현을 희망하는 날입니다.

부활 성야: 4월15일(토)

교회는 가장 장엄한 전례를 통하여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룩한 밤을 기념하며 죽음을 이기시고 참된 승리와 해방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합니다

[길을 찾는 그대에게]

사순절에 더 자주 듣는 말이 회개하라는 요청입니다. 회개가 죄와 연관되어서 그런지, 뉘우치라 하는데 그게 힘들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말이 점점 더 싫어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우선적으로는 죄와 잘못에 대한 뉘우침(悔)과 고침(改)을 뜻합니다. 그러나 회개로 번역한 성경원어 그리스말 메타노이아(metanoia)는 '생각하다(noein)'와 '넘어, 바뀌(meta)'를 합쳐놓은 말로, '생각을 바꾸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뉘우침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차원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잘 안 쓰는 옛말, '회두(回頭)', '회심(回心)'이 메타노이아에 더 가까울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단어 모두 머리카락이나 마음을 '돌리는' 일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돌리면 다른 것이 보이고, 다른 것을 보게

되면 생각이 바뀝니다. 또 이렇게 '생각을 돌이키면' 이제까지와는 다른 삶의 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상 회개란 말 또한 '잘못에 대한 뉘우침(悔)'은 그저 절반에 불과하고, 나머지 반쪽인 고침(改)이 뒤따라야 온전한 단어가 됩니다. '고친다'는 방향을 틀어 바꾸는 일입니다. 이런 까닭에 자기 속으로 파고 들어가 마냥 뉘우치기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자기매몰일 뿐입니다. 메타노이아가 되기 위해선 자기개방, 자기탈출이어야 합니다. 회개가 자기탈출을 위한 출발이라면 이 말 조금은 더 좋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홍경환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학장

하느님은 인간을 당신 모습에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하면서(창세 1, 27 참조), 왜 당신처럼 완전무결하게 만들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기에 인간은 하느님처럼 모든 것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신이 아니기에 하느님처럼 자유를 무한정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고, 인간은 하느님의 뜻과 합치될 때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성경에서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사는 이를 의로운 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에게는 하느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완전무결하지 못한 것은 하느님이 인간을 불완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당신을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그런 자유를 주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하느님이 정해놓은 운명에 따라 살아야 하는 꼭두각시 인형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당신 모습대로 창조하셨지 당신의 꼭두각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자유로이 당신을 선택함으로써 완전무결해지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느님의 의도와 달리 언제나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불완전한 우리를 당신과 화해시킴으로써 다시 완전무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보니 하느님 창조 사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완성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로소 완전무결해 진다는 말입니다.

◆염철호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성주간의 의미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1코린 15,14)

교회는 예수 부활 대축일 전 한 주간을 성주간이라 하여 1년 중 가장 거룩하게 보냅니다. 회개와 보속의 사순 시기를 살아온 신자들은 장엄한 ‘성주간’ 전례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 그 의미를 강하게 체험합니다. 성주간은 모든 전례의 꽃 중의 꽃,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수난성지 주일은 성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호산나(Hosanna, ‘구원하소서’를 뜻하는 히브리어)를 외치며 환호하던 것을 기념합니다. 그러나 그 환호가 곧 배신으로 바뀌는 아픔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주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특별한 예식은 없지만 말씀의 전례를 통해 월요일에 머지않아 일어날 예수님의 장례를, 화요일에 가장 믿었던 제자들의 배반을, 수요일에 예수님의 죽음을 가져온 유다의 배반을 묵상합니다. 성목요일 오전에는 사제들이 주교좌 성당에 모여 성유축 성미사를 집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사제직을 세운 것을 기념합니다. 이날을 사제들의 생일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녁에는 주님 만찬 미사를 봉헌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난 하시기 전날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저녁식사로써 ‘성체성사’를 세운 것을 기념하는 미사입니다. 미사 중에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시며 사랑의 새 계명을 주신 것을 본받아 발 씻김 예식(세족례)을 거행합니다. 미사 후에는 성체를 준비된 수난 감실로 옮기고 밤새워 성체조배를 하며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합니다. 성금요일은 인간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미사를 드리지 않고, 긴 수난기를 봉독 하며 십자가를 높이 쳐 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며 경배합니다. 성토요일(부활성야) 밤의 예식은 모든 전례의 절정을 이루며 가장 장엄하고 성대하게 거행됩니다. ‘빛의 예식’을 통해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느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장엄하게 봉독되고 세례 갱신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합니다.

Quiz 성주간에 대한 의미가 맞으면 ○ 틀리면 ×

- ① 성주간(월~수) 동안은 특별한 예식이 없다. ()
- ② 성주간 전례 안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한다. ()
- ③ 성목요일 오전에 사제들이 ‘성유축성미사’를 집전하는 이유는 베드로가 사제직을 세운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
- ④ 성금요일은 인간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날이다. ()
- ⑤ ‘빛의 예식’은 성토요일(부활성야) 밤에 거행되는 것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느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와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는 전례예식이다. ()

4월2일 자 정답:

- ① 성전, 사흘, 다시 ② 빌라도, 명패, 십자가, 유다인, 임금, 예수 ③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결심

◆ 김지영 사무엘 신부 / 사회 교정

「성경 속 동식물」 14 약초로 사용한 고수풀

고수풀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갈 때, 하느님께서 주신 만나를 설명하는 데에 인용된 식물이다.

“이스라엘 집안은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하였다. 그것은 고수풀 씨앗처럼 하얗고....”(탈출 16,31)

“만나는 고수 씨앗과 비슷하고....”(민수 11,7)

고수풀은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 복통이나 헝기증 등을 치료하는데 쓰인 약초의 하나이며, 고수풀의 씨는 아주 중요한 향신료였다.

◆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발행

하린 한의원

최의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3938 Sepulveda Bl. Torrance, CA 90505
☎(424)337-0788/0789

써니 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www.sunnysidecremation.com

수호천사보험

시니어매디케어건강보험전문(65세이상)
장례보험/장례적금/장례계획/모지구입문의
오바마건강보험(CoveredCA)공인 에이전트
Jay Lee(이안셀모) 310-908-8823
CA Inc.Lic.#0E75182

TIMEOUT

Café +Bar

15420 S Western Ave #C
Gardena, CA 90249
(구 카페베네)
310-715-1243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그린힐스 공원묘지

조 마리아

☎ (310)521-4306

27501 S. Western Av. R.P.V., CA90275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one auto center



AAA approved repair shop
바디 + 정비

DIESEL ENGINE 전문 정비
1-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잼마-

한국 장 의 사

(323)734-5656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토랜스 세플베다길

뚜레쥬르

새로운 패스트리 식빵

디저트 샐러드 드링크등

더욱 다양해진 메뉴(valid only at café TJL)

2841 Sepulveda Blvd

310-257-6848 이원호 요셉

파고다 캐더링

각종 일반잔.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플라라

☎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 CA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스테파노 건축

김광일 스테파노

☎(310)803-0777



은퇴/상속 전문

Financial Advisor

유 보나

Prudential
푸르덴셜

Life Insurance/Annuity/LTC/Trust
Tel. 310-755-9837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금강 안경 검안과

GOLD OPTOMETRY

L.A.:(213)384-1001 (로데오 갤러리아 몰내)

G.G.:(714)530-1001 (가주 마켓 몰내)

요셉 & 루시아 김 . ME 21차

테니스 레슨

모집대상 : 초,중,고,일반

코치 박개순 도미니코 310-997-7770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띠노



Heather Chong (정혜경)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